

<現場坐談>

환경미화운동 現場을 찾아서

- 청년사회봉사단체 상록회 -

環境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다. 그마만큼 公害문제는 우리사회 깊숙히 까지 파고든 산업사회가 안고있는 피치못할 과제이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환경보전 汎국민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本協會로나 크게는 우리나라 환경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마당에 환경보전운동의 一助가 되고 있는 학생들과 짧은 시간을 나누었다.

<편집자 註>

사회 : 노구해 記者

장소 : 상록회 회의실

일시 :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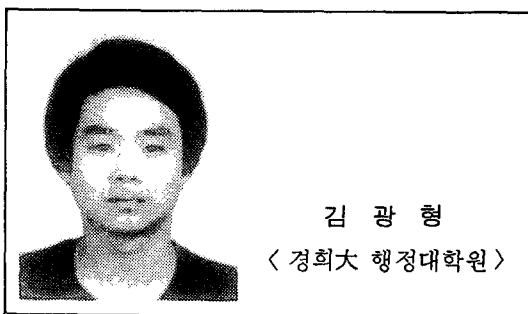
노구해 : 이렇게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보전운동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다기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 환경보전운동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환경미화 (K.K.B : Keep Korea Beautiful) 운동」의 전개는 인류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러분께서 주축이 되어 결성이 됐다고 알고있읍니다만, 환경미화운동의 전개취지 및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겠읍니까?

김광형 : 대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우리주변의 환경을 미화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여 후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환경보전운동을 위한 자생적인 조직의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봉사활동단체인 상록회 창립을 통하여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 운동의 전개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반상회를 통해 환경보호전반에 관한 실천사항을



김 광 형
<경희대 행정대학원>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할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 직접 회보를 통한 교육과 특강, 홍보교육을 위주로 전개할 것입니다.

노구해 : 그러면 K.K.B운동은 어느 곳에서 결성, 시작되게 되었읍니까?

김일화 : 강원도 삼척군 천은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곳이지만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합축된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 자체의 우의를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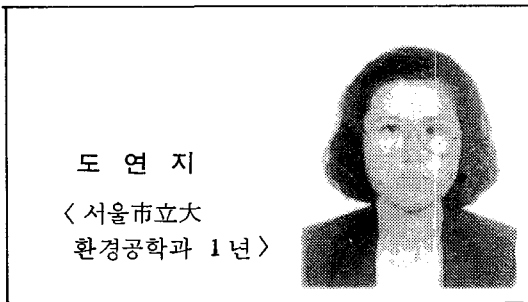
게사고자 활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직접 접하고, 자각을 하고 느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구해 : 지난 7월 22일에서 부터 24일까지 삼척군의 천은사에서 모인 K.K.B 수련회에서 환경보전운동의 방향설정 및 세미나를 진지하게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의 의의나 느낀점 또는 피력하고 싶은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연지 : 지난번 수련회는 좀 더 본격적으로 환경미화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활동발판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의 모색은 비단 환경학을 공부하는, 학도들만의 관심이나 책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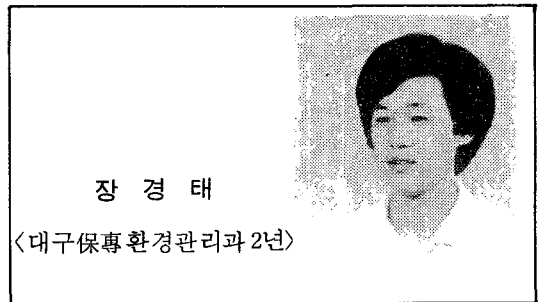
은 아닙니다. 환경문제에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희들은 전 국민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홍보활동을 통한 환

경의 중요성을 같이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수련회를 통하여 튼튼한 바탕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환경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는 장으로써 세미나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마음에 불을 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한 면이 될 것입니다.

김일화 : 저는 서울의 매콤한 냄새와 잿빛 하늘을 벗어난다는 기쁨만도 컸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니 형식이나, 가식이 없었던 것 같구요. 처음 만난 얼굴들이라 모두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쉬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연의 병든 곳, 훼손된 곳을 저희가 보았던 바로, 그곳처럼 지키고 가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경태 : 이번 환경미화운동 수련회의 의의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 젊은 세대 학생들이 앞장을 서서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자는데 그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고도의 과학 기술을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발전시킨 결과, 우린 현재



생태계의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뭏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날로 악화되어가는 우리의 환경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우리 대학인들의 손으로 끊임없이 펼쳐서 손상된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손으로 되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노구해 : 사실은 환경보전운동은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곧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전위대는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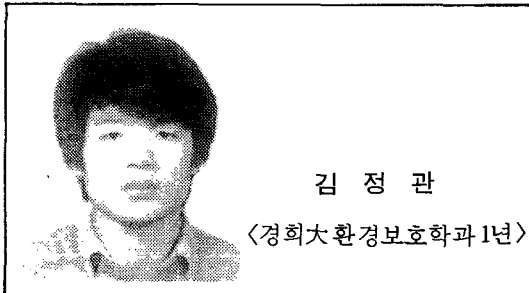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곧 사명감을 가진 참다운 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때 전국 대학생환경미화운동은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무엇, 즉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김광형: 여러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범주는 역시 對국민홍보 방법이겠지요.

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환경오염의 주發生地인 도시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학생들이 주가 된 입장에서 공해배출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단체로서는 아직 미력합니다만 반상회를 통한 의식계몽활동에 역점을 둔다거나, 86, 88 양대제전을 대비해 쓰레기분리수거 유도, 또는 직접 우리가 참여하여 쓰레기수거작업에 참여하는 방법, 매체물을 통한 방법등을 다양하게 구사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김광형씨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어지는 말 같습니다만 도시 내의 주택가, 상가, 도로 그 외 휴식 공간에서의 환경오염문제는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성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집중현상에 따른 교통 시설의 급증, 주택지 부족, 생활 폐기



김 정 관
<경희대 환경보호학과 1년>

물의 처리등이 어려운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집단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활동 내용이라면 비닐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림으로써 재사용의 여부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쓰레기의 분리 수거나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제량의 조절, 하수구나 화장실 청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오염 발생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료개선, 제진장치의 설치 권장, APT단지나 주택가의 녹지 조성, 교통시설에 의한 소음의 방지, 보도와 상가의 간판 광고물의 정비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구해: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운동이 학생들 특히 환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가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김일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의식이 깨어있는 때가 학생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정의감이 가장 고조되고 또 그 정의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거든요. 특히 환경을 학문으로 하는 저희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환경운동을 해야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재복: 저희 학과에서 얼마 전에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



신 재 복
<대구保專 환경관리과 2년>

면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쁘게 그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식입니다. 이래가지고선 아무것도 안됩니다. TV, 라디오 등의 통신수단 매체도 형식적인 보도에만 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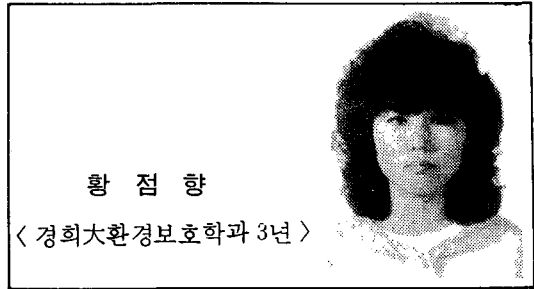
그래서 이 환경미화운동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손으로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 예로 태국에선 1970년도에 대학생들이 이 운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운동으로 파급시켰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해없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우리나라

고 못하겠습니까?

노구해 : 예. 지금까지 종합해 보자면 환경미화 운동이 아직은 시작하는 상태이며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진행해가고 있다는걸 알겠군요. 거기서 주목할만한 일은 '88올림픽때 자원봉사에 관한 건인것 같은데 누가 마지막으로 그 애길 좀 해주시겠습니까?

황점향 : 이동 쓰레기통을 생각해 왔어요. 가까이에 있지 않은 이상에는 쓰레기통을 찾아서 휴지를 버리기가 보통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동장 내부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돌아다니며 휴지를 받아내는 거지요. 귀찮은 표어를 붙인 상자나 통을 이용해서요. 경기장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그에 비해 수용할 쓰레기통은 적으니까 일시적인 방법

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구해 : 우리 協會나 환경업계, 環境人들, 더 넓게는 국민전체가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드는데군요. 이런 모임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協會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일 등 : 감사합니다. *

법무부공고 제 12 호

인권옹호포스타 및 표어현상 모집공고

제 37 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85년 12월 10일) 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포스타 및 표어를 현상모집함.

1. 내 용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계몽선전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존중사상을 고취·양양할 수 있는 내용 (세계인권선언문 참조)

2. 포스타

가. 규격 : 전지 2 절, 색도 3 도 이내

나. 상금 : 우수작 1 점 ; 500,000 원 (오십만원)

가 작 1 점 ; 200,000 원 (이십만원)

3. 표 어

가. 글자수 : 16 자이내 (1 표어당 관제엽서 1 매사용)

나. 상 금 : 우수작 ; 100,000 원 (일십만원)

가 작 ; 50,000 원 (오만원)

4. 마 감 : 85년 10월 15 일 (화)

5. 당선작 발표

개별통지하고 한국방송공사를 통하여 추후 발표함.

6. 보낼곳 :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정부제 2 청사 321호) (전화 : 503-7045·503-7046)

1985 년 9 월 10 일

법 무 부